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의 표현 양상

정 현·우 주 형*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이 연구는 최근 몇 년간 강력한 패션 트렌드 중 하나로 부상한 스트라이프 패션의 표현 양상을 고찰하여 패션디자인을 위한 폭넓은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4년 S/S에서 2017년 S/S까지 밀라노, 뉴욕, 런던, 파리 컬렉션에서 스트라이프를 사용한 4,733개 스타일, 5,913개 아이템을 수집하여 스트라이프의 적용 범위, 선 모양, 선 방향, 반복 형태, 패턴 배치, 표현기법에 따른 표현 양상을 분석하였고, 시각 효과에 근거하여 패션디자인에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W보다 S/S 시즌에 스트라이프의 활용도가 높은 가운데, 시즌에 따라 스트라이프를 사용한 스타일의 구성비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스트라이프의 활용비가 높은 아이템은 원피스 드레스(25.22%), 스커트(16.42%), 셔츠/블라우스(15.47%), 팬츠(12.21%), 재킷/코트(11.23%)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스트라이프의 표현 양상은 분석 항목별로 특정 요소가 지배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체 적용(87.37%), 직선 형태(82.70%), 가로 방향(45.31%), 규칙적 반복(86.32%), 단일 배치(83.24%), 위빙(34.30%)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원피스 드레스는 시즌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스트라이프 활용도를 나타내었고, 표현 양상에서도 가장 다양성을 보이는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항목과 관련지어 시각적으로 디자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 활용 방안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스트라이프의 선 모양, 선 방향, 반복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의복 공간의 축소와 확장, 인체구조의 강조와 파괴 등 착시효과를 유도, 의복의 형태 시각에 변화를 주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 둘째, 스트라이프의 적용 범위, 반복 형태, 패턴 배치에 따라 스트라이프의 전경과 배경의 시각적 역할을 변화시키고, 이에 강조와 균등, 명료성과 복잡성의 시각효과를 지닌 디자인으로 변주할 수 있다. 셋째, 풍부한 시각적 재질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식 디테일이나 트리밍을 활용한 스트라이프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스트라이프의 시각적 움직임과 착시효과를 활용하면서도 일관적인 스트라이프가 주는 단순함, 명료함의 이미지를 넘어 변화롭고 흥미 있는 시각효과를 지닌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방대한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여 스트라이프의 표현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나, 연구에서 제외된 스트라이프 패션의 색채 활용, 감성적 측면에서 스트라이프 패션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주제어 : 패션디자인, 스트라이프, 착시, 전경-배경, 시각적 재질감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우주형, jhwoo@inha.ac.kr

접수일: 2019년 2월 2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9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15일

I. 서론

문양은 텍스타일 디자인의 독립적 디자인 영역으로, 직물 표면, 직물 구조 및 그 위에 부착되는 재료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문양은 그 자체로 선, 형, 공간과 같은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른 요소들보다 복잡하며, 특히 패션디자인의 소재로 사용될 경우 의복의 실루엣, 구성 등과 상호작용하여 의복의 전체적 외관과 시각적 효과에 영향을 준다. 그중 스트라이프(stripe)는 대표적인 기하학 문양으로 수직, 수평, 사선 방향의 직선이나 곡선이 평행하게 배열된 것을 의미한다. 고대로부터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호일 뿐 아니라 장식적,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차별과 적대감을 표시하던 부정적 의미는 젊음과 개성 연출의 긍정적 의미로 전환되면서 패션에서 즐겨 활용되었다(Shim, 2014). 스트라이프는 모던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고, 가로줄 무늬의 마린 티셔츠는 클래식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과거 컬렉션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스트라이프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형태와 소재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패션디자인의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스트라이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스트라이프 패턴에 대한 사적 고찰(Kim, 2011; Kim & Cho, 2002; Park, 2005; Stošić, 2017), 스트라이프 디자인 요소에 따른 감성 이미지 평가(Lee et al., 2002; Lim & Uh, 2017; Moon, 2010; Otomo & Yamanaka, 2013; Sung & Kang, 2007; Thompson & Mikellidou, 2011), 스트라이프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Kim & Kim, 2015; Kim & Koo, 2012, Kim & Yum, 2017; Yoon et al., 2015; Yum, 2015), 패션디자인에 적용된 스트라이프의 조형 특성에 관한 연구(Han, 2011; Kim, 2010; Shim, 2014; Shim & Geum, 2013; Shin et al., 2008) 등 다양한 주제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

나 패션디자인에 적용된 스트라이프의 표현 양상을 아이템별로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스트라이프 패션의 조형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이번 연구와 유사 주제지만 연구 범위에서 시기적 차이가 있으므로 최근 컬렉션에서 스트라이프의 활용 양상에 대해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트라이프가 패션 트렌드로 강하게 부각된 2014년 S/S에서 2017년 S/S까지 컬렉션에 등장한 스트라이프 패션을 수집하여 표현 양상을 분석해 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즌에 따라 스트라이프를 활용한 스타일과 아이템의 구성비를 분석한다. 둘째, 아이템별 스트라이프의 표현 양상을 스트라이프의 표현 요소에 따라 분석한다. 셋째, 패션디자인에서 스트라이프 활용 방안을 표현 요소에 따른 시각적 효과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스트라이프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에 폭넓은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스트라이프를 정의하고 표현 양상 분석을 위한 스트라이프의 표현 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관련 주제를 다룬 네 편의 선행연구(Han, 2011; Kim, 2010; Shim, 2014; Shin et al., 2008)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Shin et al.(2008)은 일정한 방향의 줄무늬가 선과 색채의 반복과 변화에 의해 다양하게 배열된 것을 스트라이프로 정의하였고, 변화 요소를 줄의 간격, 넓이, 모양, 색채, 표현기법을 직조, 편성, 날염, 봉제, 자수로 분류하였다. 2006년 S/S에서 2008년 S/S 컬렉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을 시각적으로 고찰하여 스트라이프 패션의 이미지를 모던(modern), 매니시(mannish), 엘레гант(elegant), 엑조틱(exotic), 스포티(sporty)로 정리하였다. Kim(2010)은 스트라이프는 직물이나 편물의

표면에 가로, 세로, 사선 방향의 직선이나 곡선을 평행하게 나타낸 기하학적 문양의 대표적인 모티프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의 방향, 굵기, 간격, 색채를 주요 표현 요소로 언급하였다. 2000년 이후 2008년 S/S까지 소개된 패션디자인에서 스트라이프 패턴 경향을 패턴 배치에서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그 특성을 단순성, 율동성, 혼성성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Han(2011)은 스트라이프 패턴은 일정한 방향을 가진 줄 문양의 배열로서 2개 이상의 평행선과 2색 이상의 색상의 어울림으로 구성된 가장 기본적인 문양으로 정의하고, 선의 종류와 방향, 굵기와 간격, 색채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디자인적 특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간주하였다. 2000년대 이후의 현대 의상디자인과 섬유디자인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조형 특성을 선의 형태적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여 패턴의 단순성,

리듬성, 혼합성으로 제시하였다. Shim(2014)은 스트라이프는 두 줄 이상의 선이 간격을 가지고 배경과 색채가 다르게 배치된 기하학적 문양으로 정의하였다. 2004년 S/S에서 2014년 S/S 사이 디자인 사례들을 스트라이프의 넓이, 간격, 방향, 배치의 표현 요소에 따라 분류하여 조형성을 고찰하였고, 현시적 간결미, 생동적 율동미, 도회적 세련미, 평면적 추상미, 착시적 관능미로 조형미를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스트라이프는 사전적 정의를 근거로 하여 수평, 수직, 사선 방향으로 직선이나 곡선의 반복적 배열로 정의될 수 있다. 스트라이프의 표현 요소는 선의 형태, 색채, 기법, 배치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선의 형태적 특징은 모양, 방향, 굵기, 넓이, 간격, 기법은 직조, 편조, 날염, 봉제, 자수, 배치는 패턴

Table 1. 선행연구에 사용된 스트라이프 정의 및 표현 요소.

연구자	연구범위	정의	스트라이프의 표현 요소
Shin et a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S/S~2008년 S/S · 파리, 밀라노, 뉴욕 컬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방향의 줄무늬가 선과 색채의 반복과 변화에 의해 다양하게 배열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격, 넓이, 모양 · 색채 · 표현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 편성, 날염 - 봉제(장식선, 턱, 플리즈 등) - 자수
Kim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2008년 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이나 편물의 표면에 가로, 세로, 사선 방향의 직선이나 곡선을 평행하게 나타낸 기하학적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가로, 세로, 사선 - 굵기: 가는 선, 굵은 선 - 간격: 동일, 일정한 변화, 불규칙적 변화 · 색채 · 배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스트라이프 배치 - 다양한 스트라이프의 배치 - 타 문양과 혼합 배치 - 강조 배치
Han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2011년 · 의상디자인, 섬유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방향의 줄문양의 배열 · 2개 이상의 평행선과 2색 이상의 색상의 어울림으로 구성된 가장 기본적인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와 방향: 직선, 사선, 곡선 - 굵기와 간격: 좁은 선, 넓은 선 · 색채
Shim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S/S~2014년 S/S 컬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줄 이상의 선이 간격을 가지고 배경과 색채가 다르게 배치된 기하학적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이: 넓은 선, 좁은 선 - 간격: 넓은 간격, 좁은 간격 - 방향: 단일 방향, 복합 방향 - 배치: 균등, 강조 · 색채

의 적용 범위나 구성 방법을 의미하고 있다. 색채 또한 스트라이프의 중요한 표현 요소 중 한 가지지만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분석 요소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 연구 대상의 시기적 범위는 2000년~2014년까지였으며, 분석 방법은 통계적 분석은 제시되지 않았고, 빈번하게 출현하는 디자인 경향을 시각적 분류를 통해 서술적·묘사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은 위의 선행연구에 사용된 스트라이프 정의 및 표현 요소를 요약한 표이다.

III. 연구방법

1. 스트라이프 및 분석 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스트라이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스트라이프는 위빙(waving), 니팅(knitting), 프린팅(printing), 봉제 등에 의해 색채, 소재, 또는 질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직선이나 곡선의 반복적 배열을 의미한다. 한 줄로 연결된 선이 아니더라도 근접된 요소의 반복으로 시선의 움직임이 야기되어 선으로 지각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때, 반복되는 요소의 단위 형태가 커서 시선의 움직임보다 단위 형태의 모양이 우세하게 지각되는 경우,

길이와 폭의 비례 관계 때문에 면으로 지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석 항목이 되는 스트라이프의 표현 요소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적용 범위, 선 모양, 선 방향, 반복 형태, 패턴 배치, 표현기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색채는 제외하였다. 분석 항목의 세부 사항은 <Table 2>와 같다.

2. 연구 대상 및 분석방법

연구 대상은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의 컬렉션 리뷰에서 스트라이프가 주요 트렌드로 소개된 2014년 S/S에서 2017년 S/S까지 7개 시즌의 런던, 밀라노, 뉴욕, 파리 여성복 컬렉션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삼성디자인넷에 업로드된 해당 시즌의 전체 110,958개 스타일 중 앞서 제시한 정의에 따라 아이템의 약 50% 이상에 스트라이프가 적용된 6,312개의 스타일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였고, 2차 전문가 집단 평가와 해당 스타일의 디테일을 보그(www.vogue.com)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4,733개 스타일, 5,913개 아이템을 선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4를 사용하여 빈도 분석, 교차 분석의 기술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 항목에 따른 시각효과를 중심으로 패션디자인에서 스트라이프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able 2. 스트라이프 분석 항목의 세부 사항.

분석 항목	의미	세부 구분
적용 범위	아이템에서 적용된 면적	· 전체 · 부분
선 모양	선의 형태	· 직선 · 지그재그선 · 곡선 · 혼합
선 방향	선이 향하는 방향	· 가로 · 세로 · 사선 · 혼합
반복 형태	선의 굵기나 간격이 반복되는 형태	· 규칙적 반복: 단위 스트라이프의 규칙적 반복 · 불규칙적 반복: 반복의 특정 규칙이 없음 · 점진: 굵기나 배열 간격에서 그라데이션 · 혼합
패턴 배치	적용된 문양의 종류와 배치 관계	· 단일 배치: 하나의 단위 스트라이프만 활용 · 다중 배치: 두 유형 이상의 스트라이프가 활용 · 혼합 배치: 스트라이프와 타 문양을 함께 활용
표현기법	스트라이프를 구현하는 방법	· 위빙 · 니팅 · 프린팅 · 장식 디테일 · 트리밍 · 기타

IV. 결과 및 논의

1. 스트라이프 활용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

1) 스트라이프를 적용한 스타일 구성비

110,958개 스타일 중 스트라이프가 적용된 스타일은 4,733개로 4.27%에 해당하였으며, 시즌과 지역에 따라 스트라이프를 적용한 스타일의 구성비는 <Figure 1>과 같다.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F/W 시즌보다 S/S 시즌에 스트라이프 활용 비율이 높은 가운데, 2014년에서 2017년으로 갈수록 S/S 시

즌은 4.25%→4.57%→5.28%→6.51%로, F/W 시즌은 2.72%→3.16%→3.65%로 스트라이프를 활용한 스타일의 구성비가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밀라노(5.18%) 컬렉션에서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며, 런던(4.34%), 뉴욕(4.02%), 파리(3.97%) 컬렉션 순으로 분석되었다.

2) 스트라이프를 적용한 아이템 구성비

스트라이프가 적용된 아이템의 시즌별 구성비는 <Figure 2>와 같다. 전체 5,913개 아이템 중 원피스 드레스(one-piece dress)(25.22%)에 스트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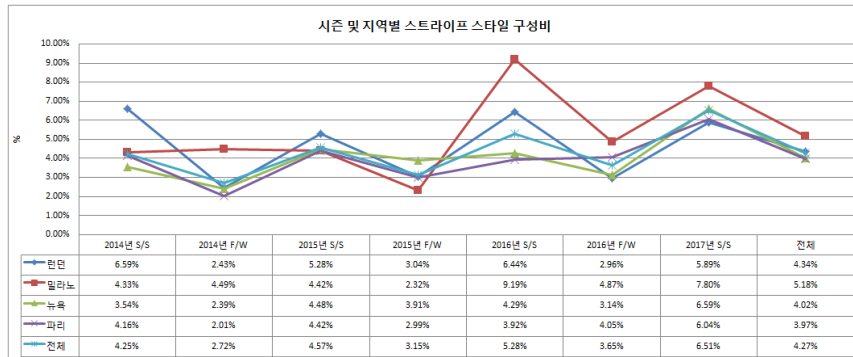


Figure 1. 시즌 및 지역별 스트라이프를 적용한 스타일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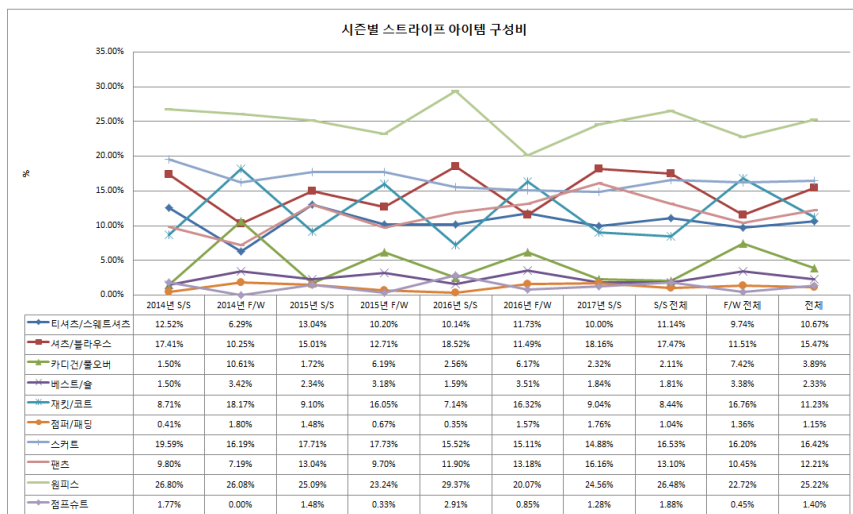


Figure 2. 시즌별 스트라이프를 활용한 아이템 구성비.

프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스커트(16.42%), 셔츠/블라우스(15.47%), 팬츠(12.21%), 재킷/코트(11.23%)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원피스 드레스는 시즌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인 아이템이었으며, 티셔츠/스웨트셔츠(sweatshirt), 스커트는 비교적 시즌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셔츠/블라우스, 점프슈트(jumpsuit)는 S/S 시즌에는 증가, F/W 시즌에는 감소하는 반면, 카디건/

폴오버(cardigan/pullover), 베스트/숄(vest/shawl), 재킷/코트는 반대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시즌별 아이템 구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3) 아이템별 스트라이프 표현 양상

아이템에 따른 스트라이프 적용 범위, 선 모양, 선 방향, 반복 형태, 패턴 배치, 표현기법의 활용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빈도수가

Table 3. 아이템별 스트라이프 표현 요소의 활용비.

항목 (%)		티셔츠/스웨트셔츠 n=631	셔츠/블라우스 n=915	카디건/폴오버 n=230	베스트/숄 n=138	재킷/코트 n=664	점퍼/패딩 n=68	스커트 n=971	팬츠 n=722	원피스 드레스 n=1491	점프슈트 n=83	합계 n=5,913
적용 범위	전체	83.36	91.15	78.70	90.58	90.66	80.88	90.83	97.51	79.75	81.93	87.37
	부분	16.64	8.85	21.30	9.42	9.34	19.12	9.17	2.49	20.25	18.07	12.6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선 모양	직선	92.87	81.09	82.17	85.51	84.94	85.29	80.43	91.69	75.12	84.34	82.70
	지그재그선	0.79	2.73	6.52	2.17	2.56	4.41	2.57	1.39	3.02	1.20	2.52
	곡선	1.90	3.06	2.17	4.35	3.01	1.47	3.09	2.91	4.43	2.41	3.23
	혼합	4.44	13.44	9.13	7.97	9.49	8.82	13.90	4.02	17.44	12.05	11.55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선 방향	가로	71.79	32.57	72.17	47.83	40.06	52.94	43.67	27.29	49.50	40.96	45.31
	세로	19.18	48.52	13.91	32.61	45.18	29.41	35.53	65.51	25.96	37.35	37.10
	사선	3.17	3.06	2.61	8.70	1.81	1.47	5.25	1.39	3.62	4.82	3.35
	혼합	5.86	15.85	11.30	10.87	12.95	16.18	15.55	5.82	20.93	16.87	14.19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반복 형태	규칙	86.53	89.07	77.39	86.23	91.42	91.18	85.07	92.94	81.09	85.54	86.32
	불규칙	10.94	9.29	20.00	12.32	6.78	5.88	12.77	6.23	14.42	9.64	11.13
	점진	1.58	1.09	1.30	1.45	1.66	1.47	1.24	0.28	3.15	3.61	1.71
	혼합	0.95	0.55	1.30	0.00	0.15	1.47	0.93	0.55	1.34	1.20	0.85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패턴 배치	단일 배치	87.32	85.46	81.30	94.20	85.84	77.94	84.35	89.34	74.71	85.54	83.24
	다중 배치	4.44	4.70	5.22	0.72	2.71	10.29	4.22	2.77	6.51	4.82	4.58
	혼합 배치	8.24	9.84	13.48	5.07	11.45	11.76	11.43	7.89	18.78	9.64	12.18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현 기법	위빙	4.44	45.79	3.48	42.75	54.07	39.71	31.72	53.05	27.36	34.94	34.30
	니팅	70.36	3.72	89.57	29.71	4.07	7.35	14.42	7.48	16.63	20.48	20.56
	프린팅	13.63	37.49	2.61	8.70	19.43	33.82	32.75	33.24	30.85	34.94	22.84
	장식 디테일	3.17	4.81	2.17	13.77	14.01	13.24	9.58	2.35	8.45	4.82	7.27
	트리밍	5.86	4.26	1.30	2.17	2.41	2.94	5.56	2.22	8.92	2.41	5.16
	기타	2.54	3.93	0.87	2.90	6.02	2.94	5.97	1.66	7.78	2.41	4.86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극히 적은 베스트/술, 점퍼/패딩, 점프 슈트를 제외한 주요 아이템에서 스트라이프의 표현 양상을 분석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적용 범위

아이템에 스트라이프를 전체 적용(87.37%) 하는 경우가 부분 적용(12.63%)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는 모든 아이템에서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Figure 3>과 같이 셔팅(shirting) 및 슈팅(suiting) 원단을 주로 사용하는 아이템, 즉 팬츠(97.51%), 셔츠/블라우스(91.15%), 스커트(90.83%), 재킷/코트(90.66%)는 전체 적용 비율이 높았다. 스트라이프의 활용비가 가장 높은 원피스 드레스에서도 전체 적용(79.75%) 비율이 높았으나, 다른 아이템에 비해 <Figure 4>처럼 부분 적용(20.25%)도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2) 선 모양과 선 방향

선 모양 중 직선은 모든 아이템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82.87%의 활용도를 보였다. 선 방향은 가로 방향(45.31%), 세로 방향(37.10%)의 순으로 분석된 가운데, 아이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가로 방향 스트라이프는 <Figure 5>처럼 편물을 주로 사용하는 티셔츠/스웨

트셔츠(70.05%)나 카디건/폴오버(66.09%)에서 활용도가 높았으며, 원피스 드레스(45.41%), 스커트(40.68%)에서도 세로 방향에 비해 즐겨 사용되고 있었다. 세로 방향은 <Figure 6>처럼 경사 염색 직물의 팬츠(64.68%), 셔츠/블라우스(48.52%), 재킷/코트(45.18%) 아이템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원피스 드레스는 타 아이템보다 혼합된 선 모양(17.44%)과 선 방향(20.93%)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Figure 7>처럼 절개를 활용하여 선 방향에 변화를 주는 방식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3) 반복 형태

단위 스트라이프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전체 86.32%로 모든 아이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Figure 8>처럼 팬츠(92.94%), 재킷/코트(91.42%), 셔츠/블라우스(89.07%) 아이템에서 규칙적 반복 형태의 비율이 높았으며, 주로 핀(pin), 펜슬(pencil), 블록(block), 더블(double), 얼터네이트(alternate) 스트라이프 등의 유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세로 스트라이프를 사용하는 아이템과 같은 결과이며 주로 한 가지 직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아이템의 구성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규칙적 반복은 <Figure 9>처럼 로 게이지



Figure 3.
전체 적용.
From SPRING 2017
READY-TO-WEAR Jil Sander.
(n.d.).
<https://www.vogue.com>



Figure 4.
부분 적용.
From SPRING 2017
READY-TO-WEAR Neil
Barrett. (n.d.).
<https://www.vogue.com>



Figure 5.
직선, 가로 방향.
From SPRING 2015
READY-TO-WEAR DKNY.
(n.d.).
<https://www.vogue.com>



Figure 6.
직선, 세로 방향.
From SPRING 2017
READY-TO-WEAR Port 1961.
(n.d.).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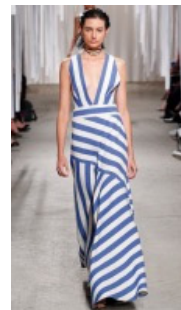


Figure 7.
직선, 혼합 방향.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Milly.
(n.d.).
<https://www.vogue.com>

(low gauge) 니트 카디건/폴오버(20.00%)에서, 점진 은 <Figure 10>처럼 원피스 드레스(3.15%)에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4) 패턴 배치

한 유형의 단위 스트라이프만을 사용한 단일 배치(83.24%)가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스트라이프를 사용한 다중 배치(4.58%), 타 문양과의 혼합 배치(11.86%)보다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모든 아이템에서 단일 배치를 활용하는 비율이 우세한 가운데, 원피스 아이템은 <Figure 11>, <Figure 12>, <Figure 13>처럼 단일 배치(74.71%), 다중 배치(6.51%), 혼합 배치(18.78%)의 비교적 다양한 패턴 배치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원피스 드레스는 타 아이템에 비해 비교적 구성 방법과 이미지 연출이 자유롭고, 면적도 넓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5) 표현기법

스트라이프를 구현하기 위해서 위빙(34.3%), 프린팅(22.84%), 니팅(20.56%)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아이템에 따라 주된 표현기법에서 차이가 있었다. 위빙은 <Figure 14>처럼 세로 방향 스트

라이프가 주로 사용되는 재킷/코트(54.07%), 팬츠(53.05%), 셔츠/블라우스(45.7%)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니팅은 <Figure 15>처럼 카디건/폴오버(89.57%)를 비롯, 가로 방향 스트라이프가 주로 사용되는 티셔츠/스웨트셔츠(70.36%)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프린팅은 <Figure 16>처럼 셔츠/블라우스(37.49%), 팬츠(33.24%)에서도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커트(32.75%)와 원피스(30.85%)에서는 다른 기법에 비해 프린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패치워크(patchwork), 프링지(fringe), 프릴(frill) 등 장식 디테일에 의한 스트라이프는 <Figure 17>처럼 재킷/코트(14.01%)에, 비딩(beading) 등 트리밍에 의한 스트라이프는 <Figure 18>과 같이 원피스 드레스(8.92%)에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재킷/코트에 장식 디테일에 의한 스트라이프 활용도가 높은 것은 최근 몇 년간 패치워크 모피코트의 유행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스트라이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1) 시각적 움직임과 착시

스트라이프의 모양과 방향, 반복 형태의 변화는 시선의 움직임을 야기하여 의복 공간을 시각적으



Figure 8.
규칙적 반복.
From SPRING 2017
READY-TO-WEAR
Lanvin. (n.d.).
<https://www.vogue.com>

Figure 9.
불규칙적 반복.
From FALL 2016
READY-TO-WEAR Etro.
(n.d.).
<https://www.vogue.com>

Figure 10.
점층.
From FALL 2015
READY-TO-WEAR
Alexander McQueen.
(n.d.).
<https://www.vogue.com>

Figure 11.
단일 배치.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Gareth Pugh. (n.d.).
<https://www.vogue.com>

Figure 12.
다중 배치.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Paul
Smith. (n.d.).
<https://www.vogue.com>

Figure 13.
혼합 배치.
From SPRING 2015
READY-TO-WEAR
Roberto Cavalli. (n.d.).
<https://www.vogue.com>



Figure 14. 위빙.
From FALL 2016
READY-TO-WEAR Max
Mara. (n.d.).
<https://www.vogue.com>



Figure 15. 니팅.
From FALL 2016
READY-TO-WEAR Missoni.
(n.d.).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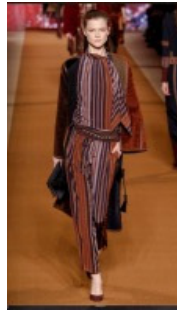


Figure 16. 프린팅.
From FALL 2014
READY-TO-WEAR Etrö.
(n.d.).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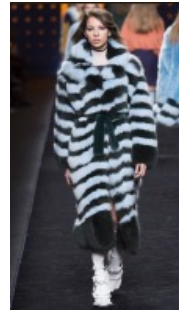


Figure 17. 장식 디테일.
From FALL 2016
READY-TO-WEAR Fendi.
(n.d.).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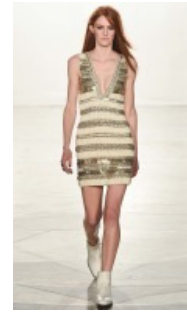


Figure 18. 트리밍.
From FALL 2015
READY-TO-WEAR Sass &
Bide. (n.d.).
<https://www.vogue.com>

로 축소·확장시킬 수 있고, 인체구조를 강조·과과하는 착시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인체와 의복의 이차원, 삼차원적 형태 지각에 변화를 주는 디자인이 가능하다.

게슈탈트(Gestalt) 시지각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형태를 지각하려는 특성(Goldstein, 2009)은 좁고 긴 스트라이프를 사용한 디자인에서 더욱 강조될 수 있다. <Figure 19>처럼 상의의 견고한 스트라이프와는 달리 스커트의 세로 스트라이프는 인체 움직임에 따라 선의 형태와 방향에 유동성이 부여되고, 이 흐름을 따르는 시선의 움직임은 실루엣과 의복 공간의 왜곡을 강화한다. 한편 선방향의 급격한 전환이 만들어 내는 모서리

는 시각적 초점을 형성할 수 있는데, <Figure 20>처럼 좌우대칭의 사선 스트라이프가 만들어내는 전환점의 규칙적 반복은 인체 중심을 따라 위로 연속되도록 시선의 방향성을 이끌어 내며 길이에 대한 착시를 발생시킨다.

헬름홀츠(Helmholtz)의 정사각형 착시로도 알려진 스트라이프 방향과 길이의 착시 효과는 가로 스트라이프를 반복 배열하여 길이를 강조하는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다(Thomson & Mikellidou, 2011). 앞의 분석 결과에서 스커트와 원피스 드레스에 가로 선의 활용도가 세로 선보다 높은 것은 이러한 착시현상이 디자인에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Figure 21>처럼 가로 스트라이프로 채워진 스



Figure 19. 유동성.
From SPRING 2015
READY-TO-WEAR Balmain.
(n.d.).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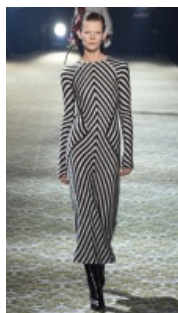


Figure 20. 방향성.
From FALL 2016
READY-TO-WEAR Haider
Ackerman. (n.d.).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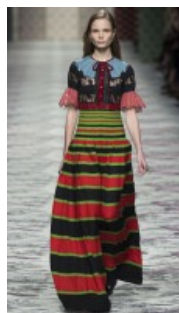


Figure 21. 길이 착시.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Gucci.
(n.d.).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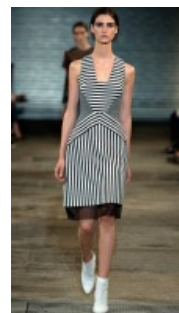


Figure 22. 입체감.
From SPRING 2014
READY-TO-WEAR Richard
Nicoll. (n.d.).
<https://www.vogue.com>



Figure 23. 평면성.
From FALL 2014
READY-TO-WEAR Timo
Weiland. (n.d.).
<https://www.vogue.com>

커트는 실제보다 하체를 길어 보이게 하며, 이때 허리에서 도련으로 넓어지는 점진적 반복은 방향성에 속도감을 더하여 확장 효과를 더욱 강조한다. 이처럼 스트라이프의 모양과 방향, 반복 형태에 따른 시각적 움직임과 착시를 활용함으로써 <Figure 22>처럼 확대와 집중 효과로 인체의 3차원적 입체감을 강조할 수도 있으며, <Figure 23>처럼 스트라이프의 방향성과 연속성을 단절시켜 평면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2) 전경과 배경의 시각적 관계

스트라이프의 적용 범위, 반복 형태, 패턴 배치에 따른 전경(figure)-배경(ground)의 시각적 비중 변화를 활용하여 강조와 균등, 명료성과 복잡성의 시각효과를 지닌 디자인으로 변주할 수 있다.

전경-배경, 즉 무늬와 바탕의 체계화는 지각 주체인 인간의 선택적, 상대적 지각에 따른 구분을 의미하며, 우리의 주의가 주어지는 상이 전경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배경이 된다(Goldstein, 2009). 그러나 때에 따라 전경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동등한 두 개의 상이 공존할 수 있는데, Pastoureau (1991/2002)는 스트라이프를 무늬이면서 바탕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패턴으로 간주했다. 일반적으로 <Figure 24>처럼 같은 간격의 규칙적 스트라이프

는 전경-배경의 구분 없이 완벽한 대립 관계의 시각적 비중으로 균형과 통일감을 만들어낸다. 반면 면적이나 공간이 작아질수록 전경으로 보일 가능성은 커지는데(Zakia, 1997/2007), <Figure 25>에서 점진 구조의 스트라이프는 코트의 상단은 검정 바탕에 흰 스트라이프, 하단은 흰 바탕에 검정 스트라이프로 지각되도록 전경-배경의 자연스러운 전환 효과를 유도한다.

민무늬와 나란히 놓인 줄무늬는 일탈과 강조를 상징하듯(Pastoureau, 2002) <Figure 26>의 부분 적용된 흰 스트라이프는 검정 바탕에서 분리되어 무늬로 기능하여 가슴 부위로 시선을 이끌고 상체를 강조한다. 한편, 타 문양과 함께 혼합 배치할 경우 패턴의 중첩에 따라 전경-배경이 결정되며, 이때 대비되는 대상이 단순할수록 전경-배경의 구분은 명확해진다(Snowden et al, 2012). <Figure 27>에서 규칙적 반복 형태의 가로 스트라이프는 수탉 문양 아래에 배치되어 공간을 채우는 배경으로 작용, 배경과 문양 사이의 층위를 명료하게 구분 짓는 반면, <Figure 28>은 스트라이프와 수탉 문양 사이 불분명한 경계에 따른 전경-배경의 모호성이 발생, 디자인의 복잡성이 강화된다. 이처럼 스트라이프는 뚜렷한 윤곽을 지닌 선의 형태로 주목받거나 형태가 없는 배경으로 사용되어 전경-배경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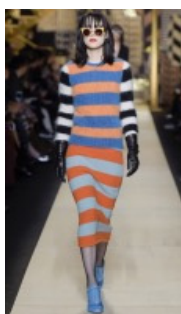


Figure 24.
전경-배경 대립.
From FALL 2016
READY-TO-WEAR Max
Mara. (n.d.).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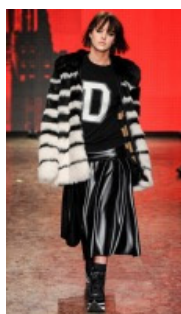


Figure 25.
전경-배경 전환.
From Fall 2014
READY-TO-WEAR DKNY.
(n.d.).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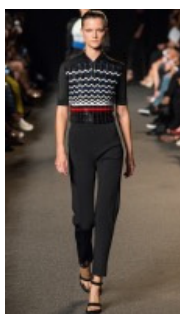


Figure 26.
전경.
From SPRING 2015
READY-TO-WEAR Alexander
Wang. (n.d.).
<https://www.vogue.com>



Figure 27.
배경.
From Collezioni Primavera
Estate 2014 Stella Jean.
(n.d.).
<https://www.vogu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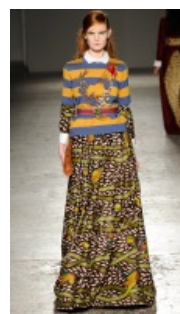


Figure 28.
전경-배경 모호성.
From FALL 2014
READY-TO-WEAR Stella
Jean. (n.d.).
<https://www.vogue.com>



Figure 29.
시각적 재질감 1.
From SPRING 2014
READY-TO-WEAR
Alexander McQueen.
(n.d.).
<https://www.vogue.com>

Figure 30.
시각적 재질감 2.
From FALL 2016
READY-TO-WEAR Sonia
Rykiel McQueen. (n.d.).
<https://www.vogue.com>

Figure 31.
입체적 시각효과 1.
From FALL 2016
READY-TO-WEAR
Alexander McQueen.
(n.d.).
<https://www.vogue.com>

Figure 32.
입체적 시각효과 2.
From Fall 2014
READY-TO-WEAR
Balenciaga. (n.d.).
<https://www.vogue.com>

Figure 33.
입체적 시각효과 3.
From SPRING 2015
READY-TO-WEAR
Osklen. (n.d.).
<https://www.vogue.com>

Figure 34.
표면구조의 교란.
From FALL 2014
READY-TO-WEAR
Naeem Khan. (n.d.).
<https://www.vogue.com>

를 통한 디자인의 명료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불안정한 전경-배경 관계를 유도하여 복잡성을 높임으로써 시각적 흥미를 이끌어 내는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다.

3) 표면구조와 시각적 재질감

비록 스트라이프가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로 표현되기 위해 위빙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Han, 2011),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할 경우 스트라이프의 착시효과와 시각적 움직임을 활용하면서도 의복의 표면구조를 재정의함으로써 시각적 재질감을 강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음영효과, 장식 효과는 디자인의 윤곽이나 볼륨감에서 변화를 수반하는 디자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시각적 재질감은 표면구조의 미세 배치(micro-layout)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미세 배치는 위빙과 니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소재 표면에 돌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입체 효과를 의미하는데(DeLong, 1987), 특히 장식 디테일과 트리밍 기법을 사용하여 스트라이프를 표현할 경우 집단적인 돌출 구조를 형성하여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 <Figure 29>의 스트라이프는 색색의 구슬과 검정 깃털로, <Figure 30>의 스트라이프는 색이

다른 시퀀(sequin)을 병렬, 중첩해 표현함으로써 불규칙한 선의 가장자리와 음영효과에 따른 섬세한 표면구조를 형성하여 평면적인 스트라이프에 비해 풍부한 시각적 재질감을 드러낸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주된 장식 디테일, 트리밍 기법으로 분석된 러플, 퍼 트리밍, 프린지에 의한 스트라이프는 디자인의 표면구조를 보다 과감하게 입체화시킨다. <Figure 31>의 스커트 부분에는 러플에 의한 스트라이프가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 배치되어 세로 효과를 강조할 뿐 아니라 상의의 평면적 스트라이프와는 달리 율동적인 선으로 디자인에 볼륨감을 부여하고 있다. <Figure 32>와 <Figure 33>처럼 퍼 트리밍과 프린지는 요철감 있는 윤곽을 만들어냄으로써 비정형화된 선과 입체적인 시각효과를 강조한다. 특히 <Figure 34>처럼 고정되지 않은 프린지에 의한 스트라이프는 착장자의 움직임에 따라 규칙적인 스트라이프가 파괴되고 표면구조를 교란시켜 시각적 혼돈과 역동성을 증가시킨다.

V. 결 론

이 연구는 최근 몇 년간 강력한 패션 트렌드 중 하나인 스트라이프 패션의 표현 양상을 고찰하여 패션디자인을 위한 폭넓은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2014년 S/S에서 2017년 S/S까지 패션 컬렉션에 등장한 4,733개 스타일, 5,913개 아이템의 스트라이프 패션을 수집하여 스트라이프의 표현 양상을 분석하고 디자인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W보다 S/S 시즌의 스트라이프 활용도가 높은 가운데, S/S, F/W 시즌별로 스트라이프를 사용한 디자인의 구성비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평균적으로 밀라노 컬렉션에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냈다. 둘째, 시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스트라이프의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은 원피스 드레스, 스커트, 셔츠/블라우스, 팬츠, 재킷/코트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고, 원피스 드레스는 시즌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스트라이프 활용도를 보였다. 셋째, 스트라이프의 표현 양상은 아이템에 따라 분석 항목의 특정 요소가 지배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적용, 직선 형태, 가로 방향, 규칙적 반복, 단일 배치, 위빙의 활용이 높았다. 특히 전체 적용, 세로 방향, 위빙 기법은 셔츠/블라우스, 재킷/코트, 팬츠 아이템에, 가로 방향, 니팅 기법은 티셔츠/스웨트셔츠, 카디건/풀오버 아이템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아이템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나 구성 방법이 스트라이프의 표현 요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피스 드레스는 표현 양상에서 가장 다양성을 보이는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원피스 드레스는 비교적 구성 방법과 이미지 연출이 자유롭고, 면적도 넓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분석 항목과 관련지어 디자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의 활용 방안을 세 가지로 논의해 보았다. 첫째, 스트라이프의 선 모양, 선 방향, 반복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의복 공간의 축소와 확장, 인체구조의 강조와 과의 착시효과를 유도, 의복의 형태 지각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둘째, 스트라이프의 적용 범위, 반복 형태, 패턴 배치에 따라 스트라이프의 전경-배경의 시각적 역할을 변화시킴으로써 강조와 균등, 명료성과 복잡성의 시각효과를 지닌 디자인으로 변주할 수 있다. 셋째, 풍부한 시각적 재질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식 디테일이나 트리밍을 활용한 스트라이프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스트라이프의 시각적 움직임과 착시효과를 활용하면서도 일반적인 스트라이프가 주는 단순함, 명료함의 이미지를 넘어 변화롭고 흥미 있는 시각효과를 지닌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방대한 디자인 사례를 수집하여 표현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고, 하나의 디자인에서도 여러 각도의 사진을 참고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물이 아닌 사진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표현기법에서 정확성 문제가 일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제한된 연구 범위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제외된 스트라이프 패션의 색채 활용, 감성적 측면에서 스트라이프 패션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References

- Collezioni Primavera Estate 2014 Stella Jean. (n.d.). *VOGUE ITALIA*.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it/sfilate/sfilata/collezioni-primavera-estate-2014/stella-jean>
- DeLong, M. R. (1987). *The way we look: A framework for visual analysis of dress*.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FALL 2014 READY-TO-WEAR Balenciaga. (n.d.). *VOGUE*.

-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balenciaga#collection>
- FALL 2014 READY-TO-WEAR DKNY.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dkny#collection>
- FALL 2014 READY-TO-WEAR Etro.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etro#collection>
- FALL 2014 READY-TO-WEAR Naem Khan.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naem-khan#collection>
- FALL 2014 READY-TO-WEAR Stella Jean.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stella-jean#collection>
- FALL 2014 READY-TO-WEAR Timo Weiland.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timo-weiland#collection>
- FALL 2015 READY-TO-WEAR Alexander McQueen.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ready-to-wear/alexander-mcqueen#collection>
- FALL 2015 READY-TO-WEAR Sass & Bide.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ready-to-wear/sass-bide#collection>
- FALL 2016 READY-TO-WEAR Alexander McQueen.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alexander-mcqueen#collection>
- Fall 2016 READY-TO-WEAR Etro.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etro#collection>
- FALL 2016 READY-TO-WEAR Fendi.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fendi#collection>
- FALL 2016 READY-TO-WEAR Haider Ackerman.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haider-ackermann#collection>
- FALL 2016 READY-TO-WEAR Max Mara.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max-mara#collection>
- FALL 2016 READY-TO-WEAR Missoni.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missioni#collection>
- FALL 2016 READY-TO-WEAR Sonia Rykiel.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sonia-rykiel#collection>
- Goldstein, E. B. (2009). *Sensation and perception* (8th ed.). Belmont: Wadsworth.
- Han, J. I. (2011). A study of the stripe patterns on the fabric design since 2000.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5(2), 160-173. doi:10.12940/jfb.2011.15.2.160
- Kim, H. S. (201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stripes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1(4), 1-24.
- Kim, J. E., & Cho, K. H. (2002). Study of stripe pattern appeared in apparel design: Focusing on western women's fashion after 20th centuri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6(4), 99-112.
- Kim, J. Y., & Yum, M. S. (2017). The development of stripe pattern us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aekdong. *Journal of Fashion Design*, 17(3), 121-139. doi:10.18652/2017.17.3.8
- Kim, K. W., & Kim, Y. (2015). Design development of female golf polo-shirts applying stripe patter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4), 35-51. doi:10.18652/2015.15.4.3
- Kim, S. Y. (2010). A study into the characteristics of stripe patterns in modern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8(3), 397-407.
- Kim, Y. S., & Koo, Y. S. (2012). Development of marine-look T-shirt design with a stripe pattern based on image colors of Busa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36(-), 69-80. doi:10.21326/ksdt.2012..36.006
- Lee, Y. J., Chung, H. J., Park, H. J., Lee, J. H., & Cho, G. S. (2002). Effect of design elements of block stripe pattern on sensibility.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5(3), 21-28.
- Lim, H. L., & Uh, M. K. (2017). Sensibility imag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stripe direction and width for semi-tight skirt.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5(1), 64-74. doi:10.7741/rjcc.2017.25.1.064
- Moon, J. Y. (2010). A study of the differing images of wearers according to differences of chroma contrast coloration and stripe patter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1), 28-42. doi:10.5805/KSCI.2010.12.1.001
- Otomo, K., & Yamanaka, T. (2013). The effect of hand drawn line distortion on impression evaluation of stripe pattern: Comparative study of Japan and Fin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Affective Engineering*, 12(2), 355-360. doi:10.5057/ijae.12.355
- Park, S. K. (2005). A study on the aesthetic value of the clothes of the stripe pattern in a historical point of view: From medieval age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3(3), 391-405.
- Pastoureau, M. (2002). *L'étoffe du diable: Une histoire des rayures et des tissus rayés* (Kang, J. H., Trans.). Seoul: Imago.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 Shim, Y. W. (2014). *A study on the formative beauty of stripe pattern expressed in fashion desig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Shim, Y. W., & Geum, K. S. (2013). A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male underwear brands distributed in

- department stores, in Shanghai, China: Based on stripe patter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3(3), 91-109.
- Shin, J. D., Kim, H. S., & Choi J. M. (2008). Analysis on Image of stripe pattern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Human Ecology*, 12(2), 215-223.
- Snowden, R., Thompson, P., & Troscianko, T. (2012). *Basic Vision: An introduction to visual percep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PRING 2014 READY-TO-WEAR Alexander McQueen.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4-ready-to-wear/alexander-mcqueen#collection>
- SPRING 2014 READY-TO-WEAR Richard Nicoll.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4-ready-to-wear/richard-nicoll#collection>
- SPRING 2015 READY-TO-WEAR Alexander Wang.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alexander-wang#collection>
- SPRING 2015 READY-TO-WEAR Balmain.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balmain#collection>
- SPRING 2015 READY-TO-WEAR DKNY.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dkny#collection>
- SPRING 2015 READY-TO-WEAR Osklen.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osklen#collection>
- SPRING 2015 READY-TO-WEAR Roberto Cavalli.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roberto-cavalli#collection>
- SPRING 2016 READY-TO-WEAR Gareth Pugh.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gareth-pugh#collection>
- SPRING 2016 READY-TO-WEAR Gucci.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gucci#collection>
- SPRING 2016 READY-TO-WEAR Milly.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milly#collection>
- SPRING 2016 READY-TO-WEAR Paul Smith.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paul-smith#collection>
- SPRING 2017 READY-TO-WEAR Jil Sander.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jil-sander#collection>
- SPRING 2017 READY-TO-WEAR Lavin.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lavin#collection>
- SPRING 2017 READY-TO-WEAR Neil Barrett.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neil-barrett#collection>
- SPRING 2017 READY-TO-WEAR Port 1961. (n.d.). *VOGUE*. Retrieved October 27, 2018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ports-1961#collection>
- Stošić, L. (2017). Stripes between the sacred and the profane. *Sociology and Anthropology*, 5(12), 1033-1040. doi:10.13189/sa.2017.051208
- Sung, N. S., & Kang, K. J. (2007). The effect on the image of men's wearers with color and area of tone on tone combination of stripe neckti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7(1), 41-62.
- Thompson, P., & Mikellidou, K. (2011). Applying the Helmholtz illusion to fashion: Horizontal stripes won't make you look fatter. *i-Perception*, 2(-), 69-76. doi:10.1068/i0405
- Yoon, K. H., Oh, S., & Kim, J. S. (2015). Design applied by natural sensibility from stripe patter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47(-), 175-184. doi:10.21326/ksdt.2015.17.2.178
- Yum, M. S. (2015). A study on fashion design utilizing for native characteristics of animal stripe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7(2), 178-190. doi:10.5805/sfti.2015.17.2.178
- Zakia, R. D. (2007). *Perception and imaging* (Park, S. W., & Park, S. J., Trans). Seoul: Ahn graphics.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Expressions of Stripes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Jung, Hyun • Woo, Ju Hyung⁺

Visiting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Abstract

As stripes have become a major fashion trend in recent yea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sent a wide range of ideas and directions for fashion design by evaluating the expressions of stripe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range of stripe, line shape, line direction, repetition pattern, way of arrangement, and expression technique in fashion design. 5,913 items in 4,733 outfits of striped fashion design from 2014 S/S to 2017 S/S fashion collections were collected to analyze expression aspects of stripes and to suggest how to adapt them into new fashion desig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proportion of striped outfits to the entire collection showed continual increase according to S/S or F/W season. The percentage of striped items was ranked in the order of one-piece dress(25.22%), skirt(16.42%), shirt/blouse(15.47%), pants(12.21%), jacket/coat(11.23%), and etc. Fully striped design(87.37%), straight line(82.70%), horizontal direction(45.31%), regular repetition(86.32%), single arrangement (83.24%), and weaving technique(34.30%) had the higher percentage in each factor of analysis. One-piece dress was the item that showed the highest usage of stripes regardless of seasons and that applied the most various expressions of stripes. Based on these results, application methods of stripes to create diversity in fashion design were suggested in three aspects. First, it is possible to develop a design that affects the optical illusion of the human body structure and the clothing space by changing line shape, line direction, and repetition pattern of stripes. Second, fashion design with a visual effect of clarity or complexity can be developed by switching figure-ground relationship of the stripe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range, repetition pattern, and the arrangement of stripes. Third, it is possible to create a design with a difference in visual texture by defining the surface structure of the stripe using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such as decorative details or trimming.

Key words : fashion design, stripes, illusion, figure-ground, visual texture

